

**럭스데이 슷침대,  
대학병원서 의료용으로 활용**

**대구한방병원 및 경희대한방병원 등에 공급 배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대구한방병원 등 까다롭기 그지 없는 국내 굴지의 의료기관에서 사람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럭스데이 슷침대의 매력에 한껏 빠졌다.

원적외선 덩어리 탄소 99.5%의 탄소성형체 전문생산업체 나노카보나(대표이사 신일산)는 지난해 9월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정환)와 협력관계를 맺고 이 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자사의 럭스데이 슷침대를 VIP 입원실과 물리치료실, 특진실 등에 공급했다.

올해 3월에는 지난 1971년 설립된 양한방 종합병원으로 동서양의학의 상호보완과 접목을 통해 의료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료원(원장 배종화)에도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럭스데이 슷침대를 병실 등에 공급해 사용되고 있는 등 의료환경이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럭스데이 슷침대가 한방병원과 같은 까다로운 의료기관에서 각광받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바로 "환자들의 병 치유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럭스데이 슷침대를 조금이라도 체험하거나 사용해본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허리나 관절 등의 고질적인 통증이 완화되었다거나, 뼈속까지 전해오는 온기로 개운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원적외선 방사효과가 그만큼 탁월하다는 방증이다.

30년 기공전문가로 잘 알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예화노인복지중앙회 김동성 회장은 슷침대의 효능에 대해 "기(氣)를 접한 지가 30년이 되었고 기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기공전문가로서 탄소성형체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우리 몸에 막힌 기혈을 뚫고 혈액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면역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무런

약물이나 부작용 없이도 아픈 곳을 정상화시키는 환원작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격찬했다.

**풋렉스, 원적외선으로 웰빙 발마사지**

해성정밀(대표 김철홍)은 특수 충격흡수 구조물을 활용한 발 맛사지기 풋렉스(Foot Lex)를 개발했다.

풋렉스는 피라미드 돌기 구조의 통풍 공간을 확보해 바닥 접지면과 공간이 형성돼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지압효과를 준다. 특히 발가락 사이 사이를 마사지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다. 운동이 부족한 회사원이나 학생, 주부는 물론 운동을 할 수 없는 노약자의 무릎·허리·관절을 부드럽게 지압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성정밀은 밝혔다.

해성정밀은 "이 제품은 국내산 고급 고령토를 배합·성형해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방출되고 한방 목초액이 첨가돼 항균 소취 기능이 탁월한 웰빙 제품"이라며 ISO14001과 ISO9001 인증, 일본 PSE·유럽 CE·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품 무게는 1.8kg이며 세척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성정밀은 통풍방식과 발바닥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신발갈창 인솔을 판매 중이다. 인솔은 통풍성이 강해 악취를 억제하고 요철구조 지압으로 혈액순환을 돕는다. 충격흡수가 뛰어나 무릎과 관절 보호에 효과적이다. 통풍방식은 온전자가 방석이나 등받이로 사용하면 지압·통풍으로 피로를 감소시키고, 학생이 사용하면 자세 교정, 집중력 향상,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

가격은 4만5000원. (031)319-2833

**동성제약, 순간 증모제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

[쿠키 건강]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방수코팅 성분으로 땀과 빗물에 안심할 수 있는 순간 증모제 '흑채 스프레이'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는 특수 방수 코팅물질이 함유돼 비, 땀 등으로 인한 흘러내림을 방지, 피부나 옷에 묻지 않고 모발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동성제약은 특수코팅제와 천연 대나무 숯 분말의 함유 성분에 대해 특허출원까지 완료했다.

동성제약에 따르면 흑채스프레이의 성분인 대나무 숯 분말은 시중 제품에서 많이 쓰이는 참 숯 분말에 비해 2배 이상의 미세 구멍을 갖고 있어 도포 시 두피와 모발 주변의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또 대나무 숯 분말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은 두피의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발에 축적되는 중금속 등 독성을 흡착하는 기능으로 두피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도포 후 5~10초의 빠른 건조로 사용 즉시 외출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수리, 앞머리 부위에 머리숱이 적은 사람이나 원형 탈모가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강한 바람이나 우천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동성 흑채만의 장점을 내세워 세븐에이트에 이은 또 다른 스테디 제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성제약은 방송인 김홍국씨를 모델로 기용해 다양한 마케팅과 출시기념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가정용(200g) 2개, 휴대용(40g) 1개 세트로 구성돼 있다. [제품문의 : 080-661-4949 / 080-664-9000]

**수정피아 '천연백수정불판' 맛과 건강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경기침체로 앓아진 지갑 사정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외식 한번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구워먹는 삼겹살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은 법.

그런데 불판에서 고기를 굽다보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고기 굽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칫 판생각이라도 하게 되면 고기는 타고, 새까맣게 탄 불판도 바뀌야하고 고기연기는 옷에 배고...그야말로 고기를 코로 먹는 건지, 입으로 먹는 건지 정신이 없다. 하지만 구이판 전문업체 수정피아에서 개발한 '천연백수정불판'은 이런 불편함을 단번에 해결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수정불판을 개선해 만든 천연백수정불판은 순도 99.9%의 백수정으로 만들어 인체에 무해한 것은 물론,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다.

수정피아의 권혁근 대표는 수정으로 불판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 "천연수정은 규칙적인 파동전류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흔들린 생체 전류 흐트러짐을 바로 잡아 신체리듬을 안정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런 수정의 특성을 이용해 제작한 수정불판으로 고기를 구울 경우 원적외선, 음이온의 다량방출로 기름을 분해시켜 건강에 유익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기가 탈 걱정이 없고, 고기의 겉과 속이 골고루 익어 한층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백수정불판은 먹는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판을 사용하는 업소에서도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불판을 따로 교체할 필요가 없어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로 간단하게 닦아낼 수 있는 편리한 세척과정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보석이라는 한 차원 높은 이미지로 훌륭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수정 피아의 권혁근 대표는 "수정 피아의 천연백수정불판은 가정용, 업소용으로 각각 제작해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식생활 개선 웰빙화에 앞장서는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정피아 / 031)388-9510

### 러빈쿡, 예열없는 전기로스타

주방기기 전문업체인 동산세라테크에서 만든 '러빈쿡'은 '러빈쿡 프리미엄골드', '러빈쿡 골드플러스', '러빈쿡 인덕션', '러빈쿡 NO.1 실버불판'과 같은 동산세라테크의 요리용 전문조리기구를 총칭하는 브랜드명이다. 이 러빈쿡은 업계에서 이미 예열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전기로스타로 정평이 높다.

실제로 기존의 전기로스타들은 예열시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 하지만 '러빈쿡'은 불판 표면 온도가 1분 만에 200도 전후로 상승하는 덕에 예열시간을 비롯한 조리시간마저 단축시켰다.

이처럼 불판이 달궈지는 시간이 단축된 것은 할로겐램프 방식이 아닌 카본(참숯)히터방식으로서 카본히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을 불판으로만 집중시키는 첨단 과학적인 설계구조 때문. 더불어 바이오세라믹스가 포함된 러빈쿡은 바이오세라믹스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을 이용해 고기를 굽기 때문에 원적외선이 육류 속까지 침투, 고기가 마르거나 찌지는 현상 없이 표면이 빠르게 구워져 고기의 육즙을 지켜낸다.

또한 러빈쿡은 연기 발생이 적어 별도의 닥터 설비가 필요 없고 유지관리 인력이 거의 필요치 않아 러빈쿡을 사용하는 업체 측에서는 청결한 매장 관리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전력비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관리비를 줄이는 효과를 보인다. 또, 내부설계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설치 및 분해가 가능하고 청소도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동산세라테크의 러빈쿡은 불황의 늪에 허덕이는 식당의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러빈쿡을 개발해 낸 동산세라테크의 도승규 대표는 "러빈쿡은 Love in Cook의 줄인 말"이라며 "러빈쿡이라는 이름만큼 고객을 사랑하는 동산세라테크 임직원과 러빈쿡 사용업체의 마음이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러빈쿡 1688-9284

### 프리미에쥬르, 한지섬유 제품 출시

유아동복 브랜드 프리미에쥬르가 소취 및 항균 기능이 뛰어난 웰빙 한지 섬유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닥나무의 닥 섬유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인 친환경 섬유소재로써 한지의 우수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 가볍고 생분해성이 뛰어나며 내구성과 내 세탁성이 우수하다. 또한 곰팡이 및 유해 세균의 발생을 방지해 어린이의 아토피 피부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프리미에쥬르 한지섬유의 특징으로는 항균성이다. 전염성 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는 황색 포도상 구균과 폐렴 구균에 대해 99.9%의 감소율을 갖는다.

또한, 암모니아등 각종 악취에 대한 탈취율이 매우 높은 소취성과 인체의 땀 및 수분을 신속하게 흡수, 발산함으로써 언제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속건성, 인체의 생리 작용을 활성화 시키는 황토수준의 원적외선을 방사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원적외선 방사이다.

프리미에쥬르 홍보실 서정훈 실장은 "피부가 민감하고 어린 아이들이 입는 의류에 친환경 소재

섭유의 사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지섭유의 개발은 웰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걸맞게 제작된 섭유로써 오가닉 못지 않게 친환경 소재로써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전했다.

### 봄맞이, 피부미용 제품 '인기'

화사한 봄을 맞아 피부미용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불청객 황사와 석면 화장품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친환경 천연소재를 이용한 미용관련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귀사문석(부여옥)을 이용하여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비누를 만든 '한국관광자원개발', 피부 미백 효과가 있는 음료를 만든 '해태음료', 무 화학 유기농 화장품을 만든 '명옥현코슈메틱' 등이 있다. 한국관광자원개발은 부여 귀사문석(부여옥) 광산에서 나오는 귀사문석을 활용하여 피부 미용에 좋은 비누 '귀안'을 새롭게 선보였다.

귀사문석 비누 '귀안'은 모든 피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얼굴의 거친 각질을 벗겨주며 피부 속 깊이 박혀있는 피지 제거에 특히 효과적이다. 또한, 거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해주며, 영양공급 및 보습을 주어 실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비누이다. 특히, 이 제품은 천연비누에 귀사문석을 첨가하여 만든 비누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중금속을 중화해주고 피부진정효과가 뛰어나 미백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이 비누는 원적외선이 93% 이상 방사되는 것은 물론, 강력한 파장과 다량의 음이온이 방출되며, 항곰팡이, 세균억제, 탈취효과 등의 놀라운 효능을 보이는 귀사문석을 첨가하여, 인체의 기 흐름을 활성화시켜 성인병과 혈행 개선에 큰 효과를 준다.

해태음료는 올 주력제품으로 최근 '순백차'를

선보였다. 다이어트 컨셉트의 기존 차음료와 달리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며 미백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제품은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의 공식 인증까지 받았다.

순백차에는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어 미백화장품 원료로 널리 이용되는 상백피와 백차, 피부 미용과 보습에 좋다고 알려진 울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다. 또한, 피부 노화 방지에 좋은 메밀 등을 주 원료로 생산해 맛과 기능, 품질에 신뢰도가 높은 차별화된 제품이다.

특히, 차본연의 깔끔하고 구수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제로 칼로리 제품으로, 피부 미백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대생 및 직장여성층을 겨냥하고 있다.

명옥현코슈메틱은 바를 수도 없고 안 바를 수도 없는 여성들의 화장품 고민을 해결해 주는 무화학 유기농 화장품을 최근 선보였다.

20대 젊은 시절, 각종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며 피부에 좋은 것을 찾아오던 명옥현코슈메틱의 운영회 대표는 천연재료만이 그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천연화장품에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

그러나, 화학 방부제가 함유되면 그 효능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무화학 유기농 화장품회사를 설립하여 피부 개선효과를 보지 못 하는 더 많은 여성들을 위해 이 제품을 만들었다. 명옥현코슈메틱의 제품은 총 19종인데 알로에 스킨, 알로에 로션과 여드름화장품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관광자원개발의 이일중 대표는 "봄을 맞아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미용관련 제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피부를 닦아주는 제품과 피부를 위해 마시는 음료, 그리고 피부를 위해 바르는 유기농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밀, 에어백 내장 베개높이 조절**

가정용품 의료기기 전문업체 골드밀(대표 최상화)은 기능성 베개 '헬스드림'(사진)을 선보였다. 이 제품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에어백이 내장돼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베개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경추와 혈이 지나가는 곳에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출되는 세라믹이 장착돼 혈액 순환 개선과 근육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저탄성 고무도 소재의 메모리폼으로 베개를 만들어 사용감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초극세사 원단으로 만든 베개외피가 쓰여 집먼지진드기 염려도 적다.

14만9000원. (053)954-6871

**한화L&C, 온도 따라 색상 변하는 바닥재 출시**

한화L&C는 특수 펄을 사용해 온도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바닥재 '명가매직'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명가매직'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바닥재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 톤으로, 다른 계절에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그레이 톤으로 변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다량의 음이온, 원적외선을 방출해 심신 안정과 숙면 유도 효과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특수 은나노 UV 코팅층 가공 처리로 찍힘이나 늘림 등 외부 자극에 대한 내구성이 탁월하다.

한화L&C 마케팅 담당자는 "보통 바닥재는 한번 시공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며 "온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명가매직'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L&C는 명가매직, 명가, 참숯, 소리지음, 퓨전 등의 주택용 바닥재 외에도 상업용 타일, 마루 등을 생산하고 있다.

**황토шел침대**

**숯·조개가루·화산토 추가한 웰빙 구들장**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황토'(대표 박환욱)는 황토에 숯과 조개가루, 화산토가 추가된 '황토шел침대'를 생산한다. 들침대에 이어 원적외선 방출을 늘리고 전자파는 물론 수맥파까지 차단하도록 설계된 웰빙형 침대다.

황토шел침대는 황토와 숯 외에 제주도에서 직접 가져온 조개가루와 화산토를 추가해 '온돌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보통 흙판두께가 7~13mm인 시중침대와 달리 20mm로 두껍게 만들었다. 흙판 사이에 숯을 넣어 열 전도율은 높이고 전원을 꺼도 온기가 지속되도록 했다.

황토 관계자는 "시중 제품이 30도까지 오르는 데 20분이 걸린다면 황토шел침대는 15분밖에 걸리지 않아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에 입점 판매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영업대리점과 인터넷 주문을 활용해 가격 거품도 대폭 뺐다. 기존 제품과 기능과 성능 면에서는 같거나 뛰어나면서도 100만~200만원까지 저렴하다.

황토шел 프리미엄 침대는 은을 함유한 신소재 부직포와 수맥 알루미 등으로 구들을 만들고 그 위에 참숯, 화산토, 조개가루, 황토 등이 추가된 온돌판재, 전자파 차단 온도 조절기와 천연가죽 등으로 외피를 씌워 사양을 높였다. 가격은 220만원부터 460만원까지.

문의 062-522-1196

**울산 주전 '몽돌' 효능 검증**

**건강 관광상품 개발 추진**

울산 12경 중 하나인 주전동 해안에 깔린 몽돌(자갈)이 건강 관련 관광상품으로 개발된다.

울산시 동구는 주전 몽돌을 채취해 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몽돌의 의학적 효능이 입증돼 관광 상품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주전 몽돌이

어두운 색을 띠고 있고, 반사광이 적어 모래와 비교했을 때 시력보호 효과가 탁월한 데다 지압 효과도 있다는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이다.

동구는 우선 조사기관을 선정해 자연 상태의 주전 몽돌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방사량과 발열 정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원적외선은 열 작용이 큰 전자파의 일종으로, 이런 열 작용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거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라스 비즈 기술력 세계 최고**

**한우물 25년 (주)신일**

달성산업단지내 (주)신일(www.shinilbead.com, 대표 박순화)은 0.8mm~3.3mm의 글라스 비즈로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글라스 비즈는 폐유리를 파쇄해 만든 아주 작은 유리 구슬로 페인트 안료, 제지, 비디오 테이프용 자성페인트를 분산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제품이다.

도로위의 차선과 교통 표지판을 그리는 페인트에 들어가 야간에도 빛을 받을 때 선명하게 빛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신일은 1981년 도로표지판 등을 보수하는 업체로 출발했다. 80년대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글라스 비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신일은 관련 전문가를 찾아 다니고 외국 산업 전시회 등을 다니면서 3년여만에 글라스 비즈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신일은 1986년 일본 (주)유니온과 첫 수출 계약을 하고 기술협력을 통해 제품의 질을 높여 나갔다.

제품 생산 초창기에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다. 국내 대기업들은 일본 제품을 수입해 쓰다가 1990년대 들면서 신일의 제품이 일본제품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일 제품을 사용하게 됐다.

이후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더 우수한 산업용 글라스 비즈를 생산했고 미주와 유럽지역에 잇따라 수출을 성사시켰다.

신일의 글라스 비즈는 동근 표면처리율이 KS기준(80%)을 훨씬 넘는 95%에 달해 일본 글라스 비즈 기업들도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글라스 비즈는 도로 교통안전 표시물에서부터 원자력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세균 살균소독, 로켓 부품, 항공기체의 표면가공, 회로기관, 주사기의 정밀가공, 페인트, 잉크의 분산미디어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신일은 25년간 글라스 비즈 단일 품목을 생산하면서 전량 선급금을 받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한 명도 없다.

박 사장은 "정직과 신뢰만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경영해 왔다"며 "원료 선택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선택된 원료는 첨단 기계 설비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최근 글라스 비즈와 은나노(nano silver)을 결합해 만든 다양한 생활용품을 생산, 사업다각화를 하고 해외 시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6년에는 경북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글라스 비즈와 은 나노를 결합한 '나노실버 글라스비즈' 개발에 성공, 3건의 특허를 받았다. 이형우 이사는 "은 나노 입자에 코팅된 글라스 비즈는 '나노실버 글라스비즈'는 은의 탁월한 항균, 탈취, 살균, 소독 등의 효과에다 글라스 비즈의 견고성으로 물속에서도 장기간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면서 "강력한 은의 효과에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해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 아토피성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자랑했다.

지난해는 나노실버 글라스 비즈를 활용한 '맑은'이란 브랜드로 베개, 매트, 수면안대, 방석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 싱크대 배수구와 냉장고, 칫솔 보관용 컵과 틀니보관용기, 가습기, 신발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은 신뢰와 기술력에서 비롯됩니다. 세계 최고가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박 사장은 "앞으로 제품 품질을 더 향상시키고 글라스 비즈를 활용한 의약·의료용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 나노카보나, 경희의료원에 숯침대 공급

나노카보나(대표 신일산)는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이어 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료원(원장 배중화)에도 지난 3월부터 '럭스데이 숯침대'를 병실 등에 공급했다.

1971년 설립된 경희의료원은 양한방종합병원으로 동·서양 의학의 상호보완과 접목을 통한 치료가 이루어 지는 병원이다.

나노카보나 신일산 대표는 "까다로운 국내 의료기관들이 럭스데이 숯침대를 채택해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고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노카보나는 지난해 9월에도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변정환)와 협력 관계를 맺어 숯침대 제품을 대학부속 대구한방병원의 VIP 입원실과 물리치료실, 특진실 등에 배치했다. 럭스데이 숯 침대는 다량의 원적외선과 음이온의 방사, 수맥과 전자파 차단, 공기청정 및 제습효과 등이 우수한 탄소 99.5%의 친환경 제품으로, 750도의 고온에도 연소되지 않으며,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 신체의 축소판 발을 지키자! '신창환경'

현대인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활동하며 보내고 있다. 몸을 지탱해주는 받침인 발에는 하루에 700여 톤의 부담을 주게 되는데,

발에는 인체에 중요한 경혈과 경락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의학서 <족부반사구건강법>에는 "인체의 모든 기관은 발바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발이함은 인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전해진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보다 향상된 기능성을 가진 신발 깔창을 연구, 개발하는 '신창환경' (대표 전진호)이 [경향닷컴 2009년 상반기 유망 브랜드대상] 미용 분야에 선정되며 그 특별한 가치를 입증 받았다.

발등부분의 골격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체중을 골고루 받쳐주며 걸을 때의 충격을 흡수 해준다. 엄지발가락은 체중을 한쪽 발에서 다른 발로 옮겨주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며, 각 발가락들은 지면을 움켜쥐어 앞으로 전진하는 동작을 돕는다. 발의 뒤축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모하여 몸을 균형 있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이 고장 나면 그 영향은 반사체계에 따라 발목에서 무릎, 골반, 허리, 척추, 내장기관, 어깨, 목, 머리까지 파급되어 혈액순환장애가 생겨 세포에 영양공급마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몸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 신체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을 사람들은 관리하기는커녕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발의 건강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신창환경(www.bariking.co.kr)에서는 순수한 친환경 원료(상항버섯의 수 십 가지)로 인체에 유익한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제조 공법으로 다년간의 임상실험을 통하여 무좀과 악취제거에 탁월한 '바리킹 기능성 음이온 신발 깔창'을 개발, 특허 출원하게 되었다.

'바리킹'이란 "발이 킹(왕)이다."라는 뜻을 소리 나는 대로 지은 이름으로써 발이 인체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바리킹 기능성 신발 깔창의 특징은 음이온과 원적외선 다량발생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무좀을 예방하고 곰팡이균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냄새 제거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리킹은 몸에도 좋은 상황버섯 외에 수십 가지의 친환경소재로 순수 수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신창환경에서 생산판매중인 기능성 깔창은 기존의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서 특수 기능을 갖는 신개념의 기능성 깔창이다.

이 제품은 군화를 신고 훈련하는 국군장병, 장화에 시달리는 수산시장 어머니, 건설현장에서 안전화속에 시달리는 아버지, 운동화 속에서 땀과 냄새로 못 견뎌 하는 학생, 무좀 및 습진, 발냄새 등에 특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

**드림엔프라이드 '뱃살도둑'**

뱃살이 성인병을 비롯한 만병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복부운동에 열을 올리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운동만으로 뱃살을 빼기란 쉽지 않은 것 뿐더러,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드림엔프라이드가 민간·한방 요법을 응용해 선보인 복부마사지기 '뱃살도둑'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뱃살도둑은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뜸과 아픈 배를 만져주던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숲속의 음이온 효과를 합쳐져 뱃살제거에 효능을 발휘하는 복부마사지기다.

제품 내부에는 3,000도의 고열에서 구워낸 손가락 모양의 6개 세라믹 마사지 봉이 들어있어 음이온 방출과 함께 복부를 마사지해 준다. 특히 세라믹 마사지 봉에 들어있는 특허물질인 '레드 텅스텐 램프'는 최적의 원적외선을 방출해 복부 등 마사지를 받는 부위에 온열을 더해 주는데, 이는 땀을 흘릴 때 발생하는 고열과 원적외선으로 45도

이상이 되면 지방이 분해된다는 사실에 착안해 고안된 장치다.

저속·저음·무진동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신체 내 장기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신체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강점이다. 또 뱃살도둑은 무료체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의 효과를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뱃살도둑 사용 후기 카페 (antwaist.cafe24.com)에서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드림엔프라이드 김수영 대표는 "마사지봉의 회전운동이 장 순방향과 일치해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 주고, 온열 효과는 소화기능 촉진에 도움이 돼 뱃살 다이어트와 근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며 "복부비만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을 감소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한약 발효연구로 신약개발 한창**

우유를 발효시켜 요구르트로 바꾸면 소화·흡수가 더 좋아지듯이 한약을 발효시켜 효능을 높이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한약도 알약 형태로 만들 수 있어 휴대 복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한방제제연구센터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4억원을 투자해 '생물전환을 이용한 한방처방의 효능 강화사업'을 추진, 갈근탕(감기), 육미지황탕(강장보약), 방풍통성산(비만 치료) 등 25종의 한방처방에 대한 발효연구를 수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개별 한약재와 복합처방 약재에 대해 어떤 유익균이 최대의 분해 효능을 갖는지 밝혀내는 것으로 약효평가·안전성평가·임상시험 등을 통해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한약은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우수한 반면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복용한 약효 성분이 체내에서 분해·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동일한 약재를 먹었을지라도 체내에서 분해·흡수가 이뤄지지 못하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돼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의학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약재를 복용하기 전에 유산균 등 체내 유익균이 먼저 약효 성분을 분해하도록 함으로써 복용 때 약효 성분의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실제 신한방제제연구센터장인 마진열 박사팀이 개발한 발효 쌍화탕의 경우 동일한 처방을 적용한 기존 쌍화탕에 비해 약효 성분이 약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나 현재 2~3개 제약사로부터 기술이전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마 박사는 “발효 과정을 통해 몸 밖에서 약효 성분을 최대한 분해한 뒤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약재가 가진 약효 성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라고 밝혔다.

발효 방법은 고형발효와 액체발효 두 가지가 있다. 고형발효는 약재 자체에 발효균을 주입해 분말 형태로 약효 성분을 추출하게 되며 액체발효는 전통적인 한약처럼 약재를 달여낸 뒤 액체 상태에서 발효시켜 약효 성분이 완전 분해된 상태로 만들어준다.

한의학연은 이와 함께 약재를 복용하는 형태를 바꾸는 ‘신한방 제제의 제형 개선 및 산업화’ 연구도 함께 수행한다. 전통 한약재는 물과 함께 달여내는 탕제 또는 환약 형태가 대부분으로 장기간 보관이나 휴대 복용이 불편하다. 그러나 발효 과정을 거친 약효 성분은 일반적인 약과 같은 알약 또는 캡슐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 복용 편의성이 향상된다.

마 박사는 “전통적인 약탕기를 이용하면 달여내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물을 육각수 형태로

바뀌 약효를 향상시키지만 실제로 이 같은 방법을 쓰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연물 신약의 경우 알약처럼 복용성이 편리해지면 산업화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통 온돌 세계화 그 중심에 선 국제온돌학회

지난 4월 25일 2009년 춘계 국제온돌학회 학술세미나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백석중 전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그린홈 200만호 적용을 위한 건강친화형 온돌의 현대화를 주제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경희 한국환경건축연구원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전통온돌의 계승을 주제로 리신호 충북대 교수, 김 종 현 배 재 대 교수, 이재은 한국목조건축연구소 소장등이 차례로 발표했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현대온돌의 개발을 주제로 문상덕 (서울산업대 건설관리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익수 (한국 온돌 문화 시공 연구소 소장, 따파시 온돌 대표), 김철병 (경동나비엔 대표) 등 온돌관련 업체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돌이란 ‘방바닥 밑으로 불기운을 넣어 방을 덥게 하는 장치’로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바닥 데우는 난방방식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국제온돌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준봉 회장은 “국제온돌학회는 온돌민속의 원형을 지키면서, 지역사, 주민정체성과 상징성이 내포된 것들을 획득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전통의 장점을 계승하여 현대의 우리들의 주생활에 적용될 현대한옥과 현대온돌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중국에서 결성된 국제온돌학회는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온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각종 세미나를 통해 온돌을 연구 발전시켜왔다.

최근에는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온돌 관련 업체들과 교류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웰빙과 그린 열풍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온돌은 라디에이터 방식을 사용하는 외국 난방시설에 비해 바닥을 데워 더워진 공기를 순환시켜 방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원적외선 방사능력을 인정받아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김준봉 회장은 “온돌은 습할 때는 습기를 빨아드리고 건조할 때는 습기를 방출해 유지해 주기 때문에 흔히 아토피 등의 현대병을 막아 주기 때문에 온돌을 단순히 난방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건강 등 쾌적한 주거환경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러한 우리 온돌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온돌관련 연구나 산업은 외국 특히 독일이나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독일에서는 일찍이 바닥 난방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 위생과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일본도 습하고 더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기온돌분야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온돌 독점화에 맞서 국제온돌학회는 온돌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온돌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사찰과 궁전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온돌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봉 국제온돌학회장은 “발해는 고구려를 이었고 고구려는 바로 한민족의 근원이라는 주장은 문헌이나 유적으로 있다. 현재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만주가 과거 한민족의 뿌리가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만으로는 논증할 수가 없다”며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온돌인 구들에 맞는 현대의 온돌을 개발하고 질 좋고 저렴한 온돌 마루와 습 쉬는 민족장판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빛나는 선조의 유산인 구들의 문화를 잇는 현대인에 맞는 온돌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 제이엠씨 '홍길몽 웰빙무연숯불구이'

가족 외식이 망설여지는 불황기.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자니 연기와 냄새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제이엠씨(대표 홍길몽 · www.joymagic.co.kr)가 개발한 '홍길몽 웰빙무연숯불구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고깃집 불판에서 굽는 맛보다 뛰어나다는 점. 씹히는 질감을 좋게 해주는 참숯의 원적외선과 복사열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이다. 홍길몽 대표는 "가스착화방식으로 참숯을 손쉽게 접화시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잘 타지 않으면서 육즙은 그대로 느껴져 고기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연기도 나지 않아 1석2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육즙, 양념, 기름 등이 숯불에 직접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구이 요리할 때 나는 연기에 함유된 벤조피렌은 주의해야 할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사용 후 청소가 간편한 점도 특징. 이 제품을 하나 장만하면 집에서 삼겹살은 물론 소, 돼지갈비, 곱창, 어패류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구이가 가능해 한자리에서 온가족이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 전기 없이 가스를 사용해 야외나들이 갈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 회사가 이미 출시해 시중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 조이매직 시리즈(JM300 · JM400 · JM500)는 식당가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홍 대표는 "냄새와 연기가 나지 않아 덕트 및 후드, 하향배관 등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 및 보수, 교체 등 재시공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고기가 잘 타지 않아 석쇠를 자주 갈 필요가 없으며 단체손님이 와도 자유롭게 테이블을 재배치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숯에는 피부 각질 연화, 작용, 살균 소독 작용, 피부 세포의 활성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숯침대(참숯매트, 참숯가습기, 참숯베개, 참숯가루, 생활참숯)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아토피성 피부염, 노인성 건조 피부염, 만성습진, 무좀 등 각종 피부염의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불꽃 없이 빛으로 조리, 친환경 으뜸**

21세기의 화두는 웰빙이다. 가전제품도 친환경 제품이 대세다.

독일의 (주)헬러(Heler)사는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원적외선 전기레인지리를 비롯한 전기 오븐레인지, 난방기 등을 독일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는 전기제품 전문회사이다. 최근 가스레인지의 유해성이 보도되면서 헬러의 전기레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가스레인지의 공기 중 산소를 태워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등 인체에 해로운 공기를 배출시킨다. 또 가스레인지의 매연 중 라돈가스는 여성폐암과 유방암 유발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어 주부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 때문에 주부들 사이에선 가스레인지리를 대체할 친환경 제품으로 전기레인지리를 인식하고 있다. 불꽃 없이 빛으로 조리하는 전기레인지리는 안전하고, 원적외선으로 조리해 영양소가 70~80% 살아있다. 4구형 쿡탑(EMP 4C/00)은 심플한 디자인과 세련된 멋이 돋보인다. 판매가 108만원.

천안시 쌍용동 광혜당약국 옆, (041)571-5733.

**건강한 숙면이 찾아주는 웰빙라이프!  
'웰라이프 통숯 침대'**

엔파워텍(www.npowertech.co.kr)이 선보이는 웰라이프 통숯침대는 다량의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 시켜준다.

그와 더불어 음이온이 발생하여 각종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해로운 양이온을 중화시켜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감소되며 깊은 숲 속에서 자는 것처럼 안락하고 평온한 잠자리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TV, 컴퓨터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유해 전자파가 발생하여 원인 모를 병을 유발시키는데, 숯은 전기 특성을 띄어 전기가 통하게 되고 실내공간에 방출된 전자파는 숯의 수많은 다공으로 흡수되어 소멸시켜 준다.

또한 기능성 침대들의 단점인 제품의 이동이 힘든 점을 보완해 상판이 6조각으로 이루어져 장소 이동하는 데에도 불편이 없도록 완성도를 높였으며 기존의 돌이나 옥, 흙침대를 쓰시는 고객들도 상판만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숯은 다량의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일반 침대의 치명적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진드기, 곰팡이 및 유해 세균의 항균 및 살균효과가 탁월하다.

**우진E&J, 불에 안타는 친환경건축자재**

불에 타지 않으면서 방음성과 보온성을 갖춘 친환경 건축자재가 나왔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업체 우진E&J(대표 전종윤)는 자체 개발한 천연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 불연(不燃)성은 물론 방음성과 보온성까지 갖추고 건물 내·외장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개발해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중윤 대표는 "보온 단열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티로폼이나 유리섬유, 우레탄 등은 불에 쉽게 타고 화재 시 유독가스를 일으켜 인명 피해와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며 "그러나 이 자재는 친환경 천연 세라믹 소재라 불에 전혀 타지 않고 내부에 많은 구멍이 있는 기공(氣孔) 구조여서 흡음력이 뛰어나 층간, 가구 간 방음재 구실을 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지 않고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하며 재활용이 가능해 산업폐기물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특히 무게가 가벼운 데다 절단과 보수가 쉬워 시공이 간편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은 m<sup>2</sup>당 1만2000원으로 스티로폼과 비슷하고 유리섬유보다는 35%가량 저렴하다. 이 회사는 천연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불연 단열재 등 관련 특허 3개 등록을 마쳤다.

전 대표는 "아파트 출입문 정도 크기인 불연 단열재를 하루 24만장씩 만들어낼 수 있는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외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완벽한 살균소독, 악취제거의 신기술 '주식회사 누리'

김정익 대표는 2001년 (주)누리법인 설립 후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의 공기, 수질 환경 정화 선두업체인 미국 Alpine Technologies사와 Ecoquest Intl사 그리고 Wein product사와 한국 독점지사 계약 및 기술협력계약 연구로 각종 공기정화 살균 시스템, 에너지 세이브형 공기정화 환기시스템, 산업용, 가정용 악취제거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이는 축사 내를 완벽 살균, 소독하는 악취제거 신기술로서 미 항공우주국 NASA의 기술 그대로 우주선 내에서까지 사용되는 살균소독 시스템이다.

현재 누리(www.agri.co.kr)에서는 어그리 시스템 제품을 정부기관 및 관공서, 학교, 사업체, 공장, 도축장, 마트, 특수 처리장, 가정 등에 공급하여 공기정화살균 환기 및 악취제거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

어그리 시스템 제품은 특수파장의 UVX 램프와 로듐은, 구리, 이산화티타늄의 특정 배합의 촉매합금속으로 촉매작용을 최고로 극대화하여 만든 셀로 OH라디칼과 과산화음이온, 산소 음이온 등 각종 정화이온들을 최대로 생성하여 공기중의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살균하여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정화 이온들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화학적으로 완전 분해하여 인체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악취의 근원인 각종 냄새분자를 최고의 산화제인 OH라디칼과 정화이온들로 완전 분해하여 악취 또한 제거하는 제품이다.

제품은 각 용량에 맞게 제작이 편리하며, 설치 및 유지보수의 간편화를 이루어 상업성 또한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위 기술은 현재 특허권을 획득하였고,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 과정은 미 항공우주국 NASA의 기술협력업체인 ECOQUEST INTL사와 협력 개발하였으며, 미국 및 국내의 권위있는 대학 및 기관으로부터 그 성능 및 효과를 인정받아, 주식회사 누리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설계, 생산, 설치 및 시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일임하고 있다.